

“코로나 호황업체 이익 나누자”... 與, 이익공유제 논의

반도체·가전·카카오페이·배달의민족 등 플랫폼·비대면 기업 피해업종에 이익 공유시 인센티브 지급...규제 완화 방안도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 19로 더욱 심화된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코로나 이익공유제'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12일 최고위원회에서 "내일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및 재정 정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할 길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하겠다"면서 "위기마저 불평등한 모습이지만, 이제 위기가 불평등을 확대

한다는 공식을 깨려는 담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익공유제에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이런 논의를 사회주의, 공산주의 등으로 폄하, 비하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공당이 정책 대안을 가지고 합리적 토론보다는 여전히 낡은 색깔론에 집착하는 것 같아 보기에 딱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코로나 시대에 상대적으로 호황을 누린 업종·업체가 자신들의 이익을 피해가 큰 업종이나 계층과 자발적으로 공유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반도체·가전 플랫폼을 누린 삼성, SK, LG 같은 대기업이나 카카오페이,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비대면 기업들이 대상 기업으로 거론된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협력이익공유제의 내용을 보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유를 유발한 방식이 있었다"며 "이번에도 그런 방식을 원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인 협력이익공유

제는 대기업·중소기업이 공동의 노력으로 달성한 이익을 사전에 약정한 대로 나누는 제도다. 그러나 20대 국회에서 제정 반발 등으로 제도 도입이 무산됐다. 민주당은 사회적 투자를 통해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대기업에 대해 공정위 표적약관 개정 등으로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홍 정책위의장은 라디오에서 "대기업이나 금융업계가 펀드를 구성해 벤처·중소기업, 어려운 계층에게 일거리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사업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극화 완화와 관련해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

고 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코로나 영업손실 보상제도'나 코로나 시대 교육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교육 안전망 강화, 돌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온종일 돌봄 확대, 필수노동자 보호방안 등이 포괄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적극 재정' 기조도 더욱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홍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충분한 재정 여력을 확보했고, 이제 적극적 재정으로 그간의 준비가 빛을 발하도록 할 시기"라며 "추가적 재단지원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여야 '주먹인사' 박병석(가운데)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왼쪽),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1층 후면 국회 준공기 앞에서 열린 이음마당(본관 후면 LED 전광판) 제막식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 서울 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검토

홍익표 "획기적 공급책 국토부와 논의"... 15일 관계장관회의서 윤곽

당정이 설 연휴 이전 발표하기로 한 '혁신적인 공급정책' 가운데 하나로 서울 내 주거지역 용도 변경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홍익표 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고밀화나 용도변경을 통해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에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대책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나 상업지역으로, 준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꿔 용적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공급 물량이 상당 규모 확보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신년사에서 "특별히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의 입장 발표 이후 좀 더 구체화된 방안이 제시된 셈이다. 국토교통부도 실제 서울과 수도권의 가용 부

지 용도변경 방안, 이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이익을 공적으로 희수하는 방안까지 마련해 조만간 당에 보고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또 공적 부문의 역할을 확대, 공급 과정에서의 부작용을 최소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세우고 있는 주택공급대책 중 하나이기도 하다. 변 장관은 "수도권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빌라 밀집지역 등을 개발하면 도심 내에서 집 좋고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근심이 큰 주거문제와 관련, 획기적인 주택 공급대책안을 마련해 설 연휴 전에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15일 예정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전후로 공급대책의 윤곽을 가다듬을 것으로 전망된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김종인 "안철수, 野 단일 후보 자처 상식 어긋나" 국민의힘, 조직 정비

"윤석열 '별의 순간' 보일 것... 기회 포착은 자기 몫" 광주·전남 3곳 지역위원장 임명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별의 순간"이 지금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에 별의 순간은 한 번밖에 안 온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 별의 순간을 제대로 포착하느냐에 따라 자기가 국가를 위해 크게 기여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다"며 "스스로 결심할 거니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 사람은 아직 여권에 있는 사람"이라며 "여권에서 (대선 후보를) 찾다가 적합한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을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이 윤 총장을 두고 표현한 '별의 순간'

은 대권 도전을 의미한 것이다. 그는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미 2011년에 별의 순간을 놓쳤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야권 단일후보'를 자처하며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도전한 안 대표에 대해 "더 이상 거론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지만, 단일화를 하려면 솔직해져야 한다"며 "나로 단일화해 달라는 요구를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누가 자기를 단일 후보로 만들어주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단일 후보라고 얘기한 것"이라며 "도대체 정치 상식으로 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그는 "보궐선거만 끝나면 나는 사라질 것"이라며 "(정치가) 별로 매력적 없어서 안 하려고 한다. 굳이 인생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공식적인 광주·전남 일부 지역 조직위원장을 임명하고 조직 정비에 들어갔다. 12일 국민의힘 광주시당에 따르면 중앙당은 전날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광주 동구남구갑 지역구에 문상욱 광주발전전략 연구원 이사장을, 동구남구을에 문충식 그린홈 인터넷세븐 회장을 각각 조직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구 조직위원장은 김화진 전남체육회 자전거연맹 회장을 임명했다. 국민의힘은 대상자가 없었던 광주 북구갑, 전남 여수갑, 순천·광양·곡성·구례, 영암·무안·신안 등 광주·전남 4개 지역구의 조직위원장을 조만간 다시 공개 모집할 계획이다. 현재 광주 2곳, 전남 4곳의 조직위원장이 공석이다. /최권일 기자 cki@

여의도 브리핑

이용빈, 생계곤란 유공자 생활수당 지급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용빈(광주 광산갑) 국회의원은 12일 5·18민주유공자 유가족 범위와 유공자 단체의 회원 범위를 조정하고, 유공자(유족) 중 생계곤란자에 대해서는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7월 이용빈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법안으로 당초 발의된 내용에는 공법단체 설립과 유가족의 범위 규정, 유공자와 유족 중 생계곤란자에 대해서는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지난해 국회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공법단체 설립에 관한 내용은 반영되어 분회를 통과했지만, 유가족의 범위와 생활조정수당 지급 등은 심사 보류된 채 반영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이용빈 의원은 상임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보류되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법안을 재발의했다.

현행법에는 5·18민주유공자 유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로 정하고, 이들을 5·18민주유공자단체 회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5·18민주회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로서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 중 추천된 1명이 포함되도록 하고, 5·18민주유공자유족회 회원의 자격으로 5·18민주유공자의 유족으로 등록된 사람에게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 중 추천된 1명을 회원으로 명시했다. /오광록 기자 kroh@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 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 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010-9576-8289, 직통전화 062)464-9706

민식이법 시행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수칙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수칙

민식이법이란 무엇인가?

- 2020년 3월 25일 시행
- 어린이보호구역 내 단속카메라 신호등 등 안전시설물 설치 의무
- 운전자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교통사고 『특정범죄가중법』 적용

사망 3년이상 또는 무기징역
상해 1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과 법규준수 잊지 마세요.”

KOROAD 도로교통공단

자본감소공고

2021년 1월 10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본 회사 자본의 총액 700,000,000원 중금 500,000,000원으로 감소할 것을 결정하였음.
위 자본감소에 의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제에 의일부터 1개월내에 본 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에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3일
주식회사 성림토건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서로 33-2
대표이사 김순이

산행안내

1월 24일(일)
▲광주서산악회 1월 24일(일) 당산과함께하고싶은!북덕유산 향적봉 눈꽃산행, 염주체육관 07:30, 동아병원앞 07:35, 롯데백화점 07:40, 광주역 07:45, 문예후문 08:00, 비엔날레주차장 08:05 ※ 다음카페 광주서산악회 ☎ 010 7794 6920

광주일보 kwangju.co.kr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227-9600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220-0551

光州日報	
• 지국안내 •	
북 구	
• 동 광	226-1920
• 문 흥	266-1960
• 북광주	525-3761
• 신 안	222-8171
• 양 산	571-7658
• 오 치	266-7601
• 용 봉	433-1503
• 우 산	433-1503
동 구	
• 남 광	675-5530
• 동 명	222-9054
• 동 부	225-6001
• 중 양	222-9054
• 충 장	222-8171
남 구	
• 남 부	675-5530
• 백 운	651-1833
• 봉 선	675-5530
• 송 하	675-6605
• 진 월	671-7276
서 구	
• 광 천	382-5788
• 상 무	372-2353
• 서광주	369-1625
• 운 천	376-7153
• 치 평	376-6511
• 풍 암	603-0311
• 화 정	369-1625
광산구	
• 윤 남	952-1687
• 월 국	959-1920
• 철 단	973-2900
• 하 남	955-0451
• 광 산	944-0444